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추모식 기록



임을 위한 행진곡

작사 백기완

개사 황석영

작곡 김종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노래이자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민중가요이다. 대학생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노래가 되었다.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노래이다. 재야운동가 백기완의 장편시를 소설가 황석영이 개사하여 작곡가인 학생 김종률이 작곡하여 세상에 나왔다. 1981년 황석영의 자택에서 카세트 녹음기에 녹음되어 처음으로 공개됐다. 윤상원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5.18 시민군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다가 도청에서 계엄군에 의해 살해됐다. 박기순은 1978년 말 전남대 국사교육과 국사교육학과 재학 중 강제 휴학되어 들불야학을 창립하여 노동운동을 펼치다가 사망했다.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추모식 식순

일시 : 2023년 5월 17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립5·18민주묘지

제1부 추모제 (9시 30분)

-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제례 -
- 5·18민주유공자 유가족

○ 놀이패 (만월) 공연

제2부 추모식 (10시30분)

◇ 개식선언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추 모 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정홍식 광주지방보훈청장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 유가족대표 인사말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 추모시 낭송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헌화 및 분향

○ 나눔의 행사

추모사

오월 명령들의 뜻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다시 5월입니다.

오월 명령 숨결 따라 우리 이렇게 다시 모였습니다.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그날의 심장은 세월을 흐르고 흘러 우리의 심장이 되어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 명령들이시여, 당신들의 뉘를 기리고 뜻을 새깁니다.

어느덧 4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민을 지키라고 준 총으로 국민을 살육하던 계엄군의 만행이 역사를 피로 물들인지 어언 43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80년 5월은 멀어져 가는 과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오늘이자 다가오는 내일입니다. 43년 전 5월의 항거를 잊고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역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싸우고 연대하며 밝히고자 했던 그날의 진실은 닿을 듯 닿지 않고 깊은 수면 아래 잠들어 있습니다. 전두환을 포함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대부분 죽거나 군

계 입을 닫고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도 그렇게 요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 그대로, 단 한걸음도 멈추지 맙시다. 43년의 세월을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오월정신을 아무리 폄훼하고 왜곡해도 돌아보지 말고 전진, 또 전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지켜온 광주정신입니다.

저 멀리 오월 명령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5·18은 명백한 국가폭력입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진실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광주가 함께하고 온 국민, 나아가 전 세계가 힘을 모을 것입니다.

더불어 5·18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이념의 경계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월정신의 왜곡과 폄훼에도 우리는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거짓 또한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진실의 힘을 믿고 우리 모두 더욱 당당해져야 합니다.

43년이 지난 오늘, 오월 명령들의 뜻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자랑스러운 오월의 명령들이시여, 고이 잠드소서..

추모사

오월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을 가슴 깊이 기억하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민주와 정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오월 영령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싸워오신 유공자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를 가슴에 묻고 통한의 세월을 견디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0여 년 전 오월, 이 땅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서슬 퍼런 군사정권에 맞서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항거는 나주를 거쳐 목포, 화순, 해남, 영암, 강진 등지로 이어졌습니다. 광주·전남 시도민은 신군부의 무자비한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함께 맞섰습니다.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은 기나긴 세월을 관통해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주먹밥을 나누고 헌혈을 하며 서로를 보듬던 오월 연대의 정신은 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갈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오월 정신을 왜곡하고 그 가치를 폄하하는 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거룩한 피와 희생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도 이러한 잘못을 바로 잡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진실을 온전히 규명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5·18 유공자와 유가족 예우에 성심을 다하고, 5·18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 오월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오월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을 가슴 깊이 기억하며, 그 뜻을 소중히 이어가겠습니다. 삼가 오월 영령의 영편을 기원합니다...

추모사

민주주의 발전 위해 헌신하신 민주영령들 명복을 빌며

정홍식 광주지방보훈청장

안녕하십니까? 광주지방보훈청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5·18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받들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님들의 고귀한 희생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지금까지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80년 5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주의의 쟁취를 위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광주에서 타올랐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밑거름이 되었고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민주·인권·정의를 꿈꾸었던 5·18정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5·18을 비롯한 많은 민주영령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2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부는 민주영령들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보훈부 격상에 발맞추어 광주지방보훈청도 공법단체로 우뚝선 5·18민주화운동 단체와 함께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추모제가 5·18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슴에 되새기고, 그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5·18민주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월 광주 민주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이제 모두가 나서야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5·18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다시 한 번 5월 18일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43년 동안 5·18 유가족과 유공자 여러분들께서는 찬란한 민주정신을 지켜내기
위해 굳건히 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아프고 참혹했던 역사적 사건
으로 기억되는 5·18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모두의 가슴에 응어리를 지게 하였습니
다. 그 어떤 위로의 말로도 희생 당하셨던 분들과 남겨진 분들의 마음을 감히 달랠 수
없을 것입니다.

1980년 5월, 우리는 이곳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용맹하게 투쟁하였던 광
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이들은 유가족
들과 피해자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비수를 찌는 극악무도한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
리는 이러한 행태에 맞서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펼쳐왔습니
다.

5·18 학살 현장의 주범이었던 인물들의 지속적인 능멸과 사과 없는 죽음은 오월의
광주 영령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최근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광주를 방문하여 오월 유족들 앞에서 눈물로 사죄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학
살 주범 당사자의 사과가 아니었기에 5·18 유가족들이 받은 상처는 쉬이 씻겨 내려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그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받아온 고통이 겹겹이 쌓여 더 단단한 포용심이 되었고, 이것이 광주 시
민의 대동 정신을 굳건히 만들었습니다.

아직 5·18은 해결되지 않았고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최초 발포명령, 민간인 학살, 시
신 압매장 등 진실규명을 위한 움직임은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반인륜적인 국가폭력
에 맞서 싸웠던 오월 광주의 저항과 민주정신은 오늘날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단
단하게 만들었고,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 이제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오늘 추모식에 오신 5·18 유가족 여러분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며, 이곳에 머문 송고한 오월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남겨진 유가족들의 평
안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가슴속 깊이 추념합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올해로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이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5·18에 대한 격랑 속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올해에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데 대해 유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5·18 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세력들은 고의적으로 5·18을 폄훼하고 망언에 조롱까지 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로 인해 5·18에 대한 아픔과 상처는 아물 길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이 담겨있듯이 이제는 5·18정신을 하루라도 시급하게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할 때입니다.

헌법에 어떤 가치를 담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은 곧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5·18정신 헌법 수록은 모든 국민이 합의한 내용이고 절차적 문제로 시간이 걸릴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5·18정신은 불의에 대항하는 정신이고 민주와 자유를 추구하는 정신이며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정신입니다.

이러한 5월 정신을 토대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민주주의를 꽃피울 때 5월 영령들께서도 편히 눈을 감고 자신들의 억울한 희생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제 5월 정신이 세계화로 나아가기 위해선 5월에 대한 왜곡된 역사와 인식을 바로잡고 청산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5·18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선양하는데 한치의 물러섬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 기필코 이뤄내야 할 숙명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슴속 깊이 추념하면서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월 곡

김정환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자는 다시 살아 이렇게 외칩니다
그해에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가 쓰러진 자의 거대한
상처투성이 목숨의 찬란함 보았는가

그해에 무엇을 보았는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목숨 다해 피 철철 흐르는 붉은 태양 보았는가

죽음이 끝내 한줌 남은 목숨보다 위대한 시간
쓰러짐이 인산인해로 나뒹구는 피비린내 끓는 학살의 끝
그렇다 우리는
결코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는
우리들 가난의 힘이 스스로 죽창으로 치솟아
푸르디푸른 하늘을 이루는 것 보았다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추모식









금남로 사랑

김준태

금남로는 사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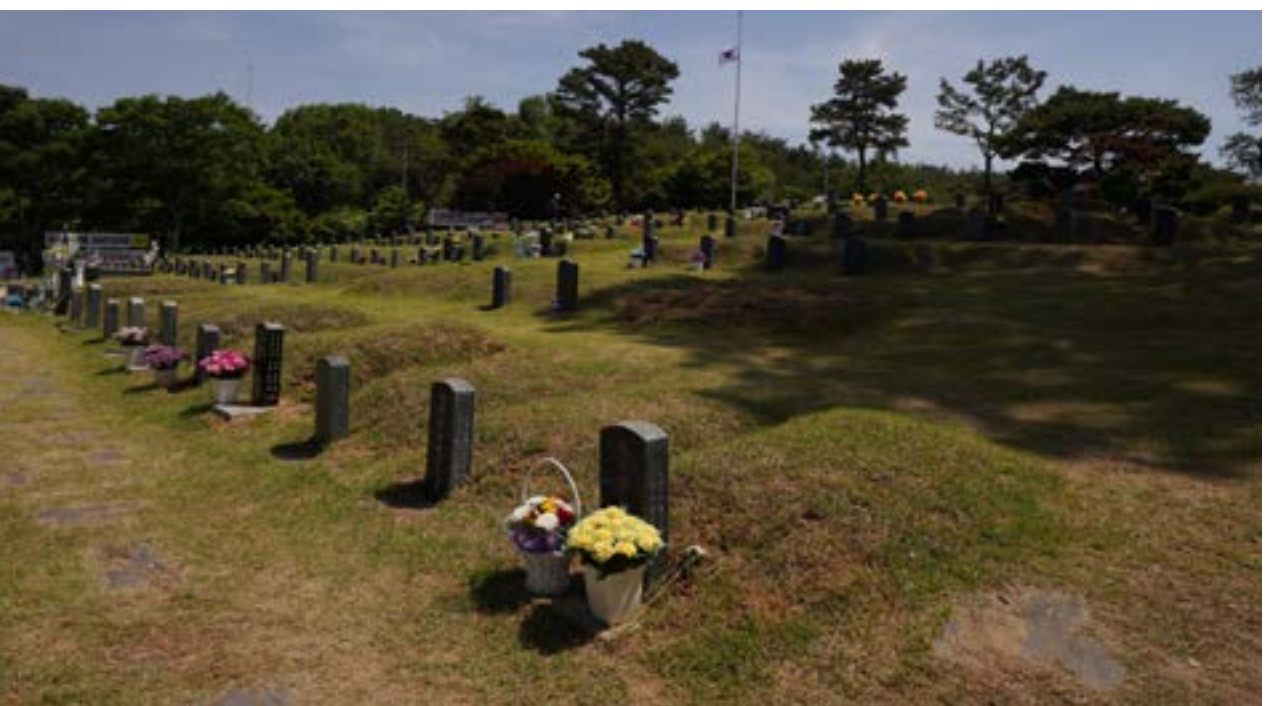
내가 노래와 평화에 눈을 뜬 봄날의 언덕이었다
사람들이 세월에 머리를 적시는 거리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처음으로 알아낸 거리
금남로는 연초록 강 언덕이었다

누이와 나란히 감꽃을 줍는 금남로
금남로는 민들레와 나비떼들의 고향이었다
그리움의 역세디 역센 끈질김 이었다 그래, 좋다!
금남로는 멀리 청산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래, 좋다!
금남로는 가까이 마을로 찾아가는 길
금남로는 어머니의 젖가슴이었다
어머니의 젖가슴이었다













찔레꽃 만가

문병란

남도의 봄빛 흐드러진 5월이 오면
 찔레꽃 하얀 가슴에
 방울방울 고운 피 묻혀
 5·18 그날의 슬픈 노래를 적는다.
 총탄 맞고 절뚝이며 절뚝이며
 쫓겨가던 사람들,
 쫓겨가다 죽은 사람들,

그 피눈물 항거의 계절에
 자유 민주주의 만세 부르며
 포도 위에 쓰러져 죽어
 아무데나 함부로 묻혀버린 사람들,
 아 세월에도
 잊혀지지 않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내릴 수 없는 피깃발

찔레꽃 하얀 가슴에
 고운 피 방울방울 묻혀
 민주·자유·민족·통일을 외치고 죽은 사람들
 그들의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을 쓴다.
 꽃다발은 시들고 향기 사라지고
 거짓 찬사는 찔레꽃 가시
 꽃밭에 숨은 살모사처럼
 피멍든 가슴 속 심장에 파고든다

그날의 무등은 의연히 솟아있는데
 하늘엔 태양, 정의의 햇불은 타오르는데
 잠들지 못하는 가슴 딛고선
 외제 군화는 이다지도 무거워
 피젖은 그날의 깃발 어디다 다시 세워야 하랴.

깨어나라 깨어나라 외치는
 저 구천의 소리 있어 귀 기울이면

자유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싸워서 누리는 권리
 하늘 아래 땅 위에 세월이 가도 식지 않을 가슴
 그 잊혀질 수 없는 불멸의 노래로
 5·18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잠들지 않는 남도 항거의 심장은 뛰고 있다.

떨기 진 찔레꽃 하얀 가슴에 고운 피 방울방울 적셔
 다시 불러보는 가신님들의 이름이여
 그 피명든 가슴에 새기는
 불멸의 불꽃 고귀한 자유의 노래
 오오 길이길이 타오르라
 오오 길이길이 타오르라































엄니

작사 나훈아

작곡 나훈아

엄니 엄니 워째서 울어쌌소
 나 여그 있는디 왜 운당가
 엄니 (엄니) 엄니 (엄니) 뭐 땀시 날 낳았소
 한 많은 이 세상 어째 낳았소
 들리지라우 엄니 들리지라우 엄니
 인자 그만 울지 마시오
 엄니 엄니 워째서 불러쌌소
 눈앞에 나 있는디 어째 날 찾소
 엄니 (엄니) 엄니 (엄니) 무등산 꽃 피거든
 한 아름 망월동에 심어주소
 들리지라우 엄니 들리지라우 엄니
 인자 그만 울지 마시오
 엄니 엄니 워째서 잠 못 자요
 잠자야 꿈속에서 날 만나제
 엄니 (엄니) 엄니 (엄니) 나 잠들고 싶은디
 잠들게 자장가나 불러주소
 들리지라우 엄니 들리지라우 엄니
 인자 그만 울지 마시오
 인자 그만 울지 마시오
 인자 그만 울지 말랑께



















